



보도자료

2014. 1. 12.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담당자

정다주 기획조정심의관(☎3480-1298)

이승규 정책연구교수(☎3480-1391)

공보관실 ☎ 3480-1451

‘가인 김병로 서세 50주기’ 추모행사 개최

- 대법원은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사망의 높임말) 50주기인 2014. 1. 13.을 맞이하여, 추념식과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가인 김병로 특별전시전, 가인 만화위인전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
- 오직 민족과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생을 바친 가인 선생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출발점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가인 선생의 업적과 뜻을 되새김으로써, 사법부가 가인 선생의 뜻을 계승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음

1. 가인 선생과 행사 취지

◆ 가인 김병로 생애와 업적

□ 가인 김병로의 생애 ⇨ 별지 가인 김병로 연보, 일화 참조



- 가인 선생은 1910년대에 일본에서 법률을 수학하고, 국내에서 경성전수 학교,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법학 강의를 함
-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로서 이인, 허헌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무료변호를 함 : 김상옥 사건, 의열단 사건, 6·10 만세 사건, 안창호 선생 사건 등 수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함
- 미군정기에는 사법부장(현재의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혼합된 성격의 지위임)으로 초기 사법부 구성, 기본 법률 제정 등에 기여하였음
-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기본 법률의 초안을 직접 담당하여 법치국가의 기틀을 세웠음
-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 건국 초기 사법권 독립에 큰 역할을 하였고, 법관들에게 오직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재판할 것을 주문하는 등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사법부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인”이라는 호의 의미

- 가인(街人)은 거리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고 거처할 곳 없는 현실을 개탄하고 독립을 바라는 가인 선생이 직접 붙인 아호였음
- 광복 후 분단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조국의 현실에 가인 선생은 가인이라는 호를 그대로 썼음

◆ 행사 취지와 슬로건

□ 행사 취지

- 2014. 1. 13.은 가인 선생께서 돌아가신지 50년이 되는 날임
- 가인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법조인들과 국민들에게 알림



- 역사적으로 오직 민족과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생을 바친 가인 선생이
현재 사법부의 출발점임을 국민들에게 알림

○ 사법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자각의 계기 마련

- 사법부가 가인 선생을 기념함으로써 그 뜻을 계승하여 국민을 위한 사
법을 실현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함

□ 슬로건 : “나라의 큰 별, 살아 있는 정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 세부 내용

◆ 가인 김병로 서세 50주기 추념식

□ 개요

○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국가기관 및 법조 관련 각 계의 주요인사와 가인
선생의 유족을 초청하여 가인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형식으로 진행

□ 일시·장소

○ 2014. 1. 13.(월) 10:00 대법원 1층 대강당

□ 참석대상

구 분	대 상 자
주요 외부 참석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 동, 서영교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국가인권위원장, 국 민권익위원장, 검찰총장, 서울특별시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광복회 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법원 내부인사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각급 법원장 등
유족 및 유족 관련 인사	가인 선생의 장손,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 수석비서관



구 분	대 상 자
	이한동 전 국무총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남재희 전 장관, 최재천 국회의원, 김진배 전 국회의원(김병로 평전 저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 주요 내용

○ 대법원장 추념사

- 가인 선생의 생애, 업적을 돌이켜 보고 가인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사법부가 사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인 선생께서 바라는 진정한 추모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

○ 가인 선생 추념 동영상 상영

- 나라의 큰 별이자 사법부 초석인 가인 선생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사법부의 다짐을 담음

○ 추념 공연

-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 시대의 개척자이셨던 가인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힘 있게 새출발하는 2014년 사법부의 희망과 열정을 담아 “프론티어”라는 곡을 연주함
- 합창 :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신 가인 선생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현직 법관·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법원종합청사 합창단과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의 아동들로 이루어진 선덕합창단(1988년에 창단된 오랜 역사를 가진 합창단임)이, 가인 선생님을 기리는 “별”과 “님이 오시는지”를 합창함

◆ 가인 김병로 서세 50주기 기념 학술심포지엄

□ 주제 : 가인 김병로와 21세기 사법부



☐ 일시·장소 : 2014. 1. 13.(월) 14:00 대법원 대회의실

☐ 내용

○ “가인 김병로와 21세기 사법부”라는 주제로, 가인 선생의 업적을 독립운동가, 법률가, 사법행정가의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가인 선생의 업적과 정신에 비추어 사법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

○ 발표분야

① 독립운동가 가인

- 발표 : 한인섭 교수, “가인 김병로, 항일민족변호사로서의 삶”

② 법률가 가인(민법 분야)

- 발표 : 김재형 교수,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③ 법률가 가인(형사법 분야)

- 발표 : 신동운 교수, “가인 김병로 선생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편찬”

④ 사법행정가 가인

- 발표 : 윤남근 교수, “사법행정가로서의 가인 김병로 선생”

☐ 참석자

○ 신입법관

○ 판사, 변호사 등 법조 직역 실무종사자

○ 법사회학 교수 등 학자, 학생

☐ 일정표

진행내용	시간	내용비고
------	----	------



개회식	14:00~14:10	개회사(법원행정처장)
장내 정리	14:10~14:20	
독립운동가 가인	14:20~15:00	발표자 :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 지정토론 : 정금식 교수(서울대 법대, 한국법제사 전공)
법률가 가인(민법 분야)	15:00~15:40	발표자 :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지정토론 : 정종휴 교수(전남대 법대)
휴식	15:40~16:00	
법률가 가인(형사법 분야)	16:00~16:40	발표자 : 신동운 교수(서울대 법대) 지정토론 : 이주원 교수(고려대 법대)
사법행정가 가인	16:40~17:20	발표자 : 윤남근 교수(고려대 법대) 지정토론 : 박철 변호사
종합토론	17:20~17:40	
폐회	17:40~17:45	

□ 심포지엄 개최의 의의

○ 가인 선생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최초의 학술심포지엄

- 가인 선생의 업적에 대하여는 개별 분야에 국한된 산발적인 연구만 이루어져 왔음
- 그 간의 연구 성과를 모두 종합하고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여 가인 선생의 업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처음임

○ 가인 선생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규명하여,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도모



- 학문적으로 가인 선생의 업적과 가르침을 밝혀 사법부가 가인 선생의 뜻을 계승하는 방향을 살펴 볼 예정

◆ 가인 김병로 서세 50주기 특별전

□ 일시·장소 : 2014. 1. 13. ~ 2014. 1. 17. 대법원 1층 복도

□ 내용

- 학술심포지엄과 연계하여, 가인의 독립운동가, 법률가, 사법행정가로서의 업적을 조망하는 특별전시 개최
- 특히, 가인 선생의 비문의 내용을 확대하여 전시함으로써 가인의 생애와 그 무렵 가인 선생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 있음
- 기존의 가인 선생의 생애를 보여 주는 가인전시관의 전시와는 달리 가인의 업적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음

□ 개방시간

- 대법원 청사 개방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되어 있고, 개인 관람의 경우 사전 예약 없이 무료입장 가능

◆ 가인 김병로 만화 위인전 발간

□ 제목 : 《정의를 바로세운 우리나라 첫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 내용개발 : 법원행정처 / 발간 : 사법발전재단

□ 발간 취지

- 많은 어린이들이 법원과 재판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장래희망으로 판사를 꿈꾸지만 그 롤모델이 되어줄 만한 인물이 크게 아직 소개된 적이 없음
-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법관상을 제시하고 법과 정의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줌으로써, 어린이들을 위한 법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 가인의 어린 시절부터 대법원장 시절까지의 에피소드들을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만화로 엮음
- 차례 및 내용
 - 의병이 된 어린 유생 -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 변호사의 꿈 - 일본 유학시절
 - 독립을 변호하다 - 항일민족변호사로의 활동
 -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이 되다. - 사법부장 시절부터 대법원장 취임 직 후까지
 -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 반민특위 활동과 6·25
 -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다.

□ 배포 및 판매

- 어린이도서관 및 각급 법원에 배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법교육 교재로 활용할 예정임
- 사법발전재단에서 일반에 판매할 예정임. [끝]



[별지 1] 가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 연표

1887. 12. 15	전북 순창군 북흥면 하리 출생
1899.	연일延日 정鄭씨와 혼인
1906.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의병에 가담
1909.	창흥학교에서 신학문 수학
1913. 3.	메이지明治대학 법과 졸업
1915.	니혼日本대학 법과 졸업
1916. 9.	경성법학전문학교 조교수, 보성전문학교 강사
1919. 4.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 임명
1920.	판사 사임. 변호사 개업
1926.	조선변호사회 회장 선임, 6·10만세운동 사건 변호
1929.	원산 노조파업 사건, 광주학생운동 사건 변호
1930.	단천 농민운동 사건 변호
1930. 12.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선임
1934.	변호사 자격정지(6개월). 서울 창동에 은거
1937.	안창호 사건 변호
1945	창동에서 광복을 맞이함
1946. 7.	미군정 사법부장 취임
1948. 8. 5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취임
1949.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장
1955.	고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받음
1957. 12.	대법원장 정년퇴임



-
- | | |
|-------------|---------------|
| 1962. |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받음 |
| 1963. | 건국공로훈장 독립장 받음 |
| 1963. 5. |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 |
| 1963. 8. | 국민의당 대표 최고위원 |
| 1964. 1. 13 | 별세(사회장) |



[별지 2 가인의 업적에 관한 일화들 및 세부 내용]

◆ 가인 선생이 항일민족변호사가 된 과정, 이유 및 평가

□ 가인 선생이 항일민족변호사가 되기까지

- 가인 선생은 일본에서 법학을 수학하여 메이지대학과 니혼대학을 우수한 성적(270명 중 22등)으로 졸업하였으나 일본에서 조선인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음.
- 이에 가인은 조국으로 돌아 와 경성전수학교 법학전문 교유(지금의 조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법학계”라는 법학잡지의 편집책임을 맡아 많은 법학 논문을 발표함.
- 조선총독부도 가인 선생의 법률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인정하여 가인을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당시는 명칭이 ‘지원’이 아니라 ‘지청’이었음) 판사로 특별 임용함.
- 그러나 가인은 당초부터 자신의 법률지식으로 민족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기를 원했고,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사 임명을 받았음.
- 가인은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판사 1년 경력을 채우고 바로 판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함.

□ 가인 선생이 민족변론을 하게 된 이유

- “내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에 유의하였다는 것은 일정의 박해를 받아 비참한 질곡에 신음하는 동포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려 함에 있었다.”
- “첫째 아무리 일본경찰이라도 변호사를 쉽게 폭행하거나 구금하기는 어



려울 것이고, 둘째 변호사 수입을 사회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고, 셋째 공개법정에서라도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인권옹호와 사회방위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가인의 회고록에 해당하는 수상단편-경향신문 연재- 중에서)

◆ 가인 선생의 유명한 변론

□ “유조리(有條理) 최열렬(最熱烈)”한 변론

○ 김상옥 의사 관련 사건(김상옥 의사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가인 선생의 변론은 1923. 5. 14.자 조선일보에서 “김상옥 사건 공판의 변론 - 유조리 최열렬한 김병로씨의 주장”이라고 크게 보도되었음

○ 당시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대어로 정리하였음)

-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사상은 조선인 전체가 가진 것이다. 피고인의 사상이 사실은 이천만의 조선민족이 독립사상을 가진 것과 같은 사상에 지나지 않음은 기록을 보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의 변혁을 도모하였다고 하여 제령7호위반이라고 처벌한다면 이것은 양민을 억지로 법의 그물에다가 잡아 넣는 것이다. 감독관이 색안경으로 국민을 대하여 억지로 처벌하는데 지나지 않으니 일본 국가에 대하여도 치욕이 아닌가 의심된다.”

◆ 가인 선생의 법학교육자로서의 업적에 대한 일화

□ 고려대학교 명예법학 박사 1호

○ 가인은 고려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첫 번째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음.



○ 당시 고려대 총장 유진오의 말씀

- “우리가 명예박사 학위를 드린 것은 항일투쟁이나 대법원장이란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성법전강사로 초기법학교육에 힘쓰고 법전편찬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 교육자 이병희의 회고

- 이병희는 1917-1919까지 보성전문 법과(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가인 선생의 강의를 들었음
- “수십 명의 교수와 강사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은 민법의 물권편을 담당하신 가인 김병로였다... 도쿄의 저명한 박사의 학설까지 비교하면서 비판하시니 실로 흥미진진하였다.”

◆ 가인 선생의 법전 편찬

□ 법전편찬

- 가인은 미군정 사법부장 재직시는 법전기초위원회 위원으로, 대법원장 재직시에는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각 법률에 손수 붓을 들고 법안의 기초를 담당하였음

□ 가인이 기본법에 미친 영향

- 가인은 건국 후 대법원장 겸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기본법 초안 작성 작업을 주도하였음
-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한 부산 피난 중에는 혼자서 민법과 형법 초안을 작성하였음. 당시 그 때까지 연구한 성과를 모두 잃어 버린 상태에서 가인 선생은 자신의 기억과 생각에 근거하여 붓을 들고 직접 초안 작성 작업을 하였다는 일화도 있음
- 가인 선생은 민법 시행 무렵에, 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음



- “나는 그 내용에 관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려 한다. 원초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 후일 모든 법학자의 근정謹正을 바랄 뿐이다. 가장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전인 만큼 하루바삐 시행하여 일정법률日政法律에 대치하는 것만도 다행한 일이다.”

- 일제강점기에는 수사기관이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을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었는데, 미군정기에 미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라는 법률이 공포되어, 우리나라에 비로소 영장주의, 보석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가인 선생이 미군정기 사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인의 책임하에 성안되고 공포된 것임

◆ 가인 선생과 사법부 독립

□ 서민호 의원 사건(가인 김병로 평전 중에서)

○ 사건 내용

-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서민호 의원이 자신을 살해하려던 서창선 대위를 사살함
- 제1심(부산지방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 선고가 됨

○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

- “도대체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될 말인가?”

○ 가인 선생의 발언

-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

◆ 가인 선생의 청렴에 대한 일화

□ 반 토막 수정도장



○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반 토막난 수정도장으로 결재를 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함

○ 金炳魯라는 한문 석 자로 새겨진 수정도장은 대법원장 취임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수정 윗 부분이 부러져 반 토막이 됨

□ 판사의 사직 철회(ebs “대법원장의 말”에 소개된 일화)

○ 박봉에 시달리던 시골 판사가 사표를 들고 찾아가자,

○ 가인 선생께서는 “나도 죽을 먹으며 산다. 함께 참고 고생해 보자.”라고 만류해, 그 판사가 사표를 거두고 돌아 갔음

□ 국산품의 이용

○ 법원의 물품을 구입할 때 국산 종이가 질이 좋지 않아 직원들이 “다른 관청에서는 다 외제를 쓰는데 우리만 나쁜 국산을 쓴다.”며 외제 종이를 쓸 것을 건의하자,

○ 가인 선생께서는 “관청에서 국산품을 쓰지 않으면 우리 산업은 누가 키우냐”며 직원들을 타일렀다고 함

◆ 가인 선생의 법관의 자세에 관한 말씀

○ 우리 사법관들은 오직 정의의 변호자가 됨으로써 3천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의 권위를 세우는데 휴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1957. 6. 24. 사법감독관 회동에서)

○ 법관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법관으로서의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 실추는 법관 전체의 명예 실추가 되는 것입니다. 법관은 양심과 이성을 생명처럼 알아야 하며 이를 굳게 지킴으로써 법관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1953. 10. 12. 제1회 법관훈련회동에서)

○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 가인 선생의 개인적 삶의 어려움에 관한 일화

□ 왼쪽 다리 무릎을 잘라 냄

- 1949. 10. 11. 왼쪽 다리의 신경통이 악화되어 입원하였는데, 골수염으로 판명되어 1950. 2. 20. 왼쪽 다리에서 무릎 이하를 끊어내는 큰 수술을 받았음

□ 6·25 전쟁 중 처를 잃음

-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인 선생은 사법부를 이끌고 부산에 피난을 감
- 그러나, 가인 선생은 부인에게는 “나는 정부의 한 사람인 만큼 정부를 따라 피난을 가는 것이 도리이다. 며칠 있으면 저놈들을 반격할 것이니 우리가 잠시 좀 떨어져 있을 수 밖에 없다. 자네는 담양 친정으로 가라.”고 함
- 그러나 친정으로 피난했던 부인은 9·28 수복 며칠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 됨

□ 위와 같은 개인적 어려움에도, 가인 선생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향한 의지로 법전 편찬 작업, 사법부 운영 등 산적한 국가 과제를 해결해 가심



[학술심포지엄과 관련된 내용 소개]

□ 독립운동가 가인에 대한 한인섭 교수의 발표 내용

- 가인 선생의 독립변론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음
- 학술심포지엄 발표자인 한인섭 교수는 가인 선생의 독립변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 뒤,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에피소드 내용
 - 1931년 잡지에서 <동서고금 인물좌담회>라는 것을 개최하였고, 주요한(사회자), 유광렬(중앙일보사), 차상찬(개벽사 주간), 김병로(전 신간회위원장) 등이 출석하였음
 - 문답 내용
 - 주요한 : 대심원장(당시 일본의 대법원, 당시 식민지 조선에는 대법원이 없고 고등법원이 최고 심급 법원이었으며, 대심원은 동경에 있었음)을 고른다면 누가 될까요?
 - 유광렬 : 여기 계신 김병로 씨로 하지요.
 - 김병로 : 나는 된다해도 안하겠습니다.
 - 차상찬 : 김병로 씨는 안돼요. 이론만 할 터이니 될 수 있습니까 (웃음)
- 조선이 독립되어야만 대심원 같은 최고법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을 전제한 문답임.
- 그런데 과연 해방을 맞아 정부를 수립할 때 사법부는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 (중략)... 한마디로 가인 김병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일제하의 그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의 결과로도 김병로는 독립-건국 이후의 대법원장 감으로 올려 놓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다. (한인섭 교수의 발표글 중)

- 식민지 시대를 가장 열렬하게 살아간 한 법조인의 삶은 해방 후 우리의 사법 및 법제의 한 초석이 되었음

□ 법률가(민법 분야)에 대한 김재형 교수의 발표 내용

- 학술심포지엄 발표자인 김재형 교수는, 가인 선생이 민법 초안을 기안할 때 가졌던 이념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
 - ① 우리 고유의 문화와 풍속에 맞는 독자적인 민법을 제정해야 한다.
 - ② 일본민법을 대체하는 독립적인 민법을 제정하되, 세계 여러 나라의 민법을 참고한다.
 - ③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을 지양·발전시킨다.
 - 김병로 자신이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활동을 중시하였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시대상황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분석함
 - ④ 자연법적 사고에 따라 법원칙을 존중한다.
 - ⑤ 합리적이고 현실적합성이 있는 민법을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 임대차에 관한 여러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대물변제의 예약을 규제하고 차주를 보호하는 민법 제607조, 608조는 매우 독창적인 입법임(대여금을 금전으로 변제받지 않고 물건으로 대물변제받기로 미리 약정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임)
 - ⑥ 우리 고유의 전통과 순풍미속을 유지하되,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이러한 사상은, 민법의 친족상속법의 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친족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 (중략) ... 제나라 사회 제국가 그 민족적 윤리와 제나라 역사적 전통을 가장 귀중히 해가지고서 제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나라든 지 외국법을 그대로 갖다가 제정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김병로의

□ 법률가(형사법 분야) 신동운 교수의 발표내용

- 가인의 형법이론은 현행 형법의 바탕이 되었음
- 예를 들어, 사회상규에 관한 실질적 위법성론을 밝힌 가인의 형법이론은 일본이나 독일 형법에 없는 우리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의 토대가 되었음
 - 가인은 경성전수학교 전임 교원자격으로 1915년부터 1916년까지 법학계라는 잡지에 『범죄구성의 요건되는 위법성을 논함』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음
 - 여기서 가인은 실질적 위법성을 논하면서 우리 형법에만 있는 고유한 표현인 “사회상규(社會常規)”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실질적 위법성의 근거가 공서양속 내지 사회상규라는 점을 밝혔음
 - 가인의 이러한 이론은 우리 형법 제20조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음
- 형사소송법 역시 가인 선생의 힘으로 법률 초안이 완성되었음
 - 1950년 전반기까지 형사소송법 초안의 심의는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에까지 나아가고 있었음
 -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여 그동안 수집작성되었던 자료들이 대부분 망실되었음
 - 가인은 부산에서 극도의 악조건 속에서 형사소송법 초안 작성을 지속하여 1953년 1월경 국회에 형사소송법안이 제출되게 되었음



- 가인은 이러한 입법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적어도 한 법전을 편찬하려면 적어도 몇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1년 이상 내지는 수년을 걸쳐야만 좀 그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내려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피난 중에, 혹은 밤에 불이 없으면 머리로 숙려 고찰을 하고, 불이 있고 날이 되면 외국서적과의 생각과 비교를 해서 이래서 총망 중에 이것이 편찬된 것이니까 그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 신동운 교수는, 형사소송법의 제정에 관하여 그의 형법학자로서의 기량, 대법원장으로서의 식견, 독립투사 변론 이래의 실무경험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형사소송법의 초안은 제대로 성안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사법행정가 가인에 대한 윤남근 교수의 발표 내용

- 사법부장 시절 가인의 가장 큰 업적은 행정부로부터 법원을 독립시켜 3권 분립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임
- 초대 대법원장으로서의 가인은 사법행정의 제도적 확립 뿐만 아니라 법전 편찬위원장을 맡아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건국 초기 사법제도의 운영과 체계의 확립에 중요한 모든 기초를 확립하였음
- 정치세력과 외부의 사회경제적 집단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보여 주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법관들의 청렴, 강직, 공정의 임무를 강조하고 실천을 독려하였으며, 외부세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여 사법부의 수호자와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아낌 없이 하였음

□ 가인 선생의 업적에 대한 내용은 학술심포지엄에서 자세히 발표될 예정임